

101. 조선소 의장부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조선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임○○은 1984년 7월부터 조선소 의장부서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로 2005년 10월에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임○○의 의장부 기계팀의 주요 업무는 엔진 및 주요 동력설비, 기관설치 등이고, 세척작업은 월1회 정도의 간헐적으로 했는데 기관부위인 주엔진, 동력전달 샤프트 및 프로펠러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중금속(납, 크롬, 망간, 구리, 아연, 철)에 대해 측정하였고, 소음만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혈중연, 요중 총삼염화물에 대해서 평가하였는데, 요중총삼염화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역학조사에서 세척작업을 측정한 결과 개인노출 및 지역시료 평가에 의한 노출수준은 낮았다.

3. 의학적 소견: 임○○은 1979년 3월 H중공업에 입사하여 5년간 주로 샤프트가 삽입되는 스팀튜브를 천공하는 업무를 하였다. 1984년에 OO중공업에 입사하여 천공 작업 및 엔진, 샤프트, 프로펠러 설치 업무를 주로 하였고, 세척작업을 병행하였다. 흡연은 6년전 금연하였는데 하루 15개피 20년간 하였고, 음주는 소주 1병/회, 주 1-2회 정도였다. 1995년에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고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이후 6개월정도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 입원치로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는 없었다. 2004년도 정기건강진단의 문진에서 미세한 냄새에 대한 후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인지하였고, 2005년 3월경 일상생활에서 후각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인지하여 2005년 8월에 목포중앙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2005년 10월에 J대학병원에서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4. 결론: 근로자 임○○은

- ① 세척작업 중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화학물질 노출은 후각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② 스팀튜브 천공작업 전문 기술자로 세척 작업이 적었고, 유기화합물 노출 수준 및 노출량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 ③ 무후각증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두부 외상에 의한 전두엽 병변 및 부비동염 소견이 의무기록과 두부 CT, MRI에서 나타나, 이로 인한 후각장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임○○의 무후각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